

IBREA Report

Vol.8 | 2016년(단기 4349년) 9월 10일

CONTENTS

The Answer is the Brain

News

지구경영
뇌교육
History

- 2015년 11월 : 전 세계 최초 '지구경영학과' 개설
- 2015년 12월 : 제주서 '韓日 청소년 미래교육포럼' 개최, 지구경영 인재상 강조
- 2016년 2월 : 한중일 지구경영 워크숍 개최- 청년, 뇌 그리고 지구
- 2016년 3월 : '지구경영' 저서 발간 및 17개국 지구시민연합회 결성
- 2016년 3월 : 국제뇌교육학회(IRABE) 창립, '지구경영, 뇌교육, 교육의 미래' 주제
- 2016년 5월 : 제66차 유엔NGO컨퍼런스 참가,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시너지 모색
- 2016년 6월 :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워크숍'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거점도시 통영서 개최
- 2016년 8월 : 글로벌 청소년 지구시민운동 시작, 뉴욕서 '국제청소년배꼽힐링클럽'

Report

- "개인 정신건강 증진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열쇠"
- '제2의 뇌를 깨워라', 글로벌 건강관리 트렌드 '배꼽힐링' 효과 주목

2015년 11월 : 전 세계 최초로 '지구경영학과' 개설

대한민국 미래교육포럼 개최, 지구경영학과 신설 및 지구경영선언문 선포



2015년 11월 2일, 서울 일지아트홀(강남 소재)에서 ‘한국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뇌교육의 참 가치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미래교육포럼’이 개최되어 급변하는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인재양성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모색되었다.

이날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흥익하는 것이 인성회복의 출발이며, 미래교육의 핵심가치다. 그런 가치를 갖고 설립된 벤자민인성영재학교를 통해 학생들 DNA 속의 재능이 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미래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와 지구를 위한 인

재가 될 것임을 기대한다.” 라고 했다.

오프닝 스피치를 맡은 이민화 KAIST 교수는 “21세기는 창조교육을 해야 한다. 이제는 전문성뿐 아니라 창조하고 협업할 줄 아는 인재를 원한다. 이를 위해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선두 주자)형 교육, 기업가적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정답을 만들어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승헌 총장은 “인류는 뇌를 갖고 있지만, 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뇌에 대한 설명서가 없다. 뇌를 활용하려면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뇌교육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올바른 인생관과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이

끌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인류평화와 지구환경 개선, 홍익인간의 새로운 문명을 열기 위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에 지구경영학과를 개설한다. 지구경영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구경영 리더를 양성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 Keynote Speech “지구경영 시대와 뇌교육의 미래” (요약)

요즘 모든 지식이 인터넷 속에 있다. 이제는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니라 뇌를 활용할 줄 아는 교육이 필요하다. 진정한 교육의 개념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필요한 것에 도전하고 당당히 원하는 것을 이뤄낼 때 자신감이 생긴다. 이를 위해 탄생한 것이 뇌교육이다. 뇌교육의 핵심 원리, 뇌운영시스템(B.O.S. Brain Operating System)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 인생관, 국가관을 갖도록 하는 원리다.

인류는 뇌를 갖고 있지만, 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뇌에 대한 설명서가 없다. 뇌를 활용하

려면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뇌교육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올바른 인생관과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간다. 국가관이 바로 서고 인생관이 바로 섰을 때, 그 국민은 세계를 이끌어갈 정신문명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환경오염, 전쟁, 기아 등으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 인류평화와 지구환경 개선, 홍익인간의 새로운 문명을 열기 위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에 지구경영학과를 개설한다. 지구경영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구경영 리더를 양성할 것이다.

2015년 12월 : 제주시 '韓日 청소년 미래교육포럼' 개최, 지구경영 인재상 강조

- 국제뇌교육협회,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공동주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열려
- 특별초청, 지구시민 리더양성 한-일 벤자민인성영재학교 학생들 '지구경영선언문' 선서



국제뇌교육협회가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와 공동 주최로 '한일 청소년 미래교육포럼'이 제주 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열렸다. '우리가 상상하는 행복한 학교'라는 주제로 제주뇌교육협회, 지구시민운동연합이 주관하고, 제주관광협회, 제주국학원, 무병장수테마파크가 후원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은 "오늘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는 분들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해 걸어가, 지구촌을 앞으로 더 밝게 변화시키길 바란다."라고 축

사했다. 김희연 도의원도 축사를 하며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평화의 섬 제주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세대 리더들이 평화와 번영이 있는 미래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역량과 지혜를 잘 모색하시기를 바란다. 모든 청소년들의 건투를 빈다."라고 축하메세지를 보냈다.

이어 초청 특강으로 "평화의 섬 제주와 글로벌 리더의 정신 (박효정 제주 국학원장)", "제주의 문화, 그 끝없는 발견 (김수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장)"이 열렸다. 2부에서는 김나옥 벤자민인성영재



학교(이하 벤자민학교) 교장의 “글로벌 인성영재의 조건”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청소년들의 공연과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2016년 일본에도 설립되어 글로벌학교로 발돋움한 벤자민학교 한국, 일본 학생들과 함께 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행복한 학교’ 세션은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을 미래형 학교 학생들의 눈으로 비추어 관심을 받았다.

특히, 포럼 마지막에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이 ‘지구경영선언문’ 선서를 통해, 지구촌 시대 새로운 인재상의 역할과 가치를 다짐하며 주목을 받았다. ‘지구경영선언문’은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교육포럼’에서 인간의 가치, 지구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글로벌리더 선언문으로 제시된 바 있다.

2016년 2월 : 한중일 지구경영 워크숍 개최 - 청년, 뇌 그리고 지구

- 韓中日 청년리더, 평화의 섬 제주에서 지구경영을 외치다
-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포럼' 제주대에서 개최
-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한국명 이만열) 교수 초청, 韓中日 청년리더들과 대담



한중일 청년리더들이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에 대해 모색하는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포럼(Korea-China-Japan Earth Citizen Youth Forum)'이 2016년 2월 20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청년, 뇌 그리고 지구(Youth, Brain and the Earth)'라는 슬로건으로 5일간 제주에서 열린 '한중

일 지구경영 워크숍'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국제뇌교육협회와 지구시민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주뇌교육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박수진 제주뇌교육협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가별 '지구시민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한중일 연대를 통한 지구경영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으로 진행된 포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종일관 열띤 발

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글로벌 지구시민 프로젝트: ICARE 2020

포럼 1부에서는 국가별 ‘지구시민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발표하는 세션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펼친 ‘Upgrade Your World Campaign’ TOP5에 선정된 비영리국제단체인 미국 ECO(Earth Citizens Organization) 스티브 김 이사의 글로벌 지구시민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강연으로 시작됐다.

스티브 김 이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 개인 삶의 방식이 기후변화와 어떤 연관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과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미국 ECO에서 진행하는 ‘ICARE(Involve, Change, and Act to Recover the Earth) 2020 캠페인’에 대해 설명했다.

스티브 김 이사는 “예전에는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했다. 그러나 현재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청년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급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강연을 마쳤다. 이어 글로벌 지구시민 운동에 앞장서는 국제뇌교육협회 김선영 국제협력팀장, 한국ECO 이석희, 일본ECO 남도해, 중국 유다 대표 줄리 묘, 글로벌 인성콘텐츠 서비스 기업인 (주)화이트홀 이동욱 대표가 한중일 국가별 프로젝트를 공유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한중일 청년들과 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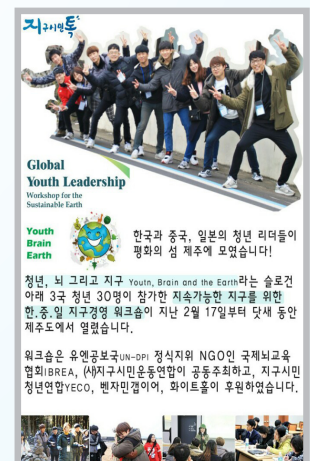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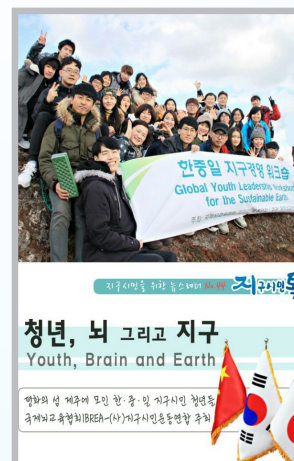
포럼 2부에서는 베스트셀러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의 저자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한국명 이만열) 경희대 교수가 특별강연자로 나서 한중일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예일대에서 중문학 학사, 동경대에서 비교문화학 석사,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언어문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석학으로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최근 동북아 상황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기후변화, 빈부격차, 건전한 사회 건설 등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냉전시대 방식을 갖고 전쟁까지 염두 하는 사람이 있다. 심각한 정치와 국제 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정치인, 대기업의 회장이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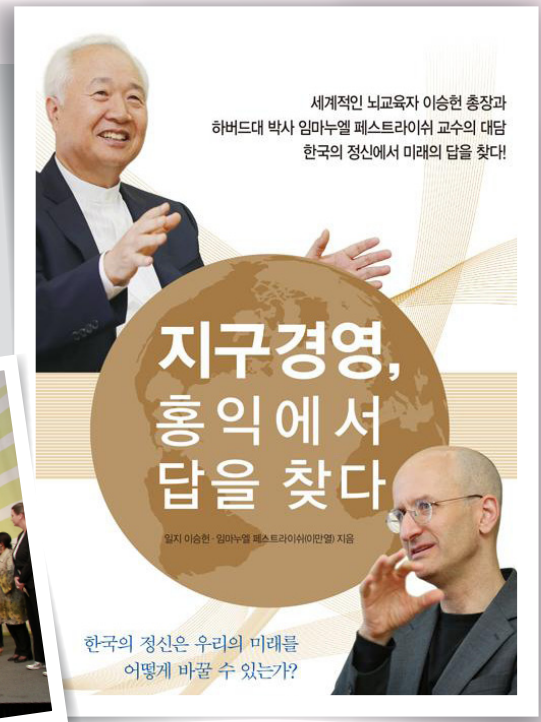
포럼을 마친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워크숍을 주최한 국제뇌교육협회 관계자들에게 “한중일 청년들이 이렇게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기적적인 일이다. 세상을 바꾸는 데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다. 이정도 인원으로, 멤버들로 시작하면 된다.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으니 지속적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며 깊은 공감을 전했다.

마지막 3부는 ‘지구경영’ 시대를 위해 한중일 3국 청년들이 국가별 혹은 한중일 연대를 통해 펼쳐갈 지구시민 프로젝트에 대한 토론과 발표의 장으로 이어졌다.



2016년 3월 : '지구경영' 저서 발간 및 17개국 지구시민연합회 결성

- 《지구경영, 흥익에서 답을 찾다》 이승헌 협회장,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공저 발간
- 17개국 지구시민운동연합 대표단 참가, '세계지구시민운동연합대회' 개최
- 뇌교육의 가치 실현 위한 글로벌액션, '지구시민운동' 본격화



뇌교육의 가치실현을 위한 글로벌액션인 '지구시민운동'이 본격화되는 장이 2016년 3월 1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21세기 평화운동과 지구환경에 앞장서온 지구시민운동연합(WECA)은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글로벌사이버대 총장)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한국명 이만열) 교수(경희대)의 공저인 《지구경영, 흥익에서 답을 찾다》 출판을 기념하여 17개국 지구시민운동연합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지구시민운동연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승헌 협회장은 “자본주의는 자전만을 강조해 이기심과 무한경쟁이 극대화되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며 스스로 자전하듯이 인간도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스스로 자전해야 한다”라며 “지구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자전하고 공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흥익인간이고 지구시민”이라고 설명했다.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이승헌 총장에게서 '지구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상당한 희망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1838년 아편전쟁 이후 150여 년 동안 많은 동아시아 사람들은 영국, 유럽과 같은 기술 발전을 통한 풍요와 힘을 가지는 것이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와 같은 과학기술 중심의 문명, 소비만을 강조하는 문화에는 한계가 있다. 그 답을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한국의 '흥익인간' 정신에서 찾고자 한다”고 했다.

이 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카타르 등 16개국에서 온 지구시민운동연합 대표단이 각 나라의 언어로 지구시민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날 행사장에는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과 지구시민운동연합 대표와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체인지TV(www.changetv.kr)로도 생중계됐다.

2016년 3월 : 국제뇌교육학회(IRABE) 창립, '지구경영, 뇌교육, 교육의 미래' 주제

초대 학회장에 오른 이승헌 국제뇌교육회장, “인동설(人動說) 시대 전환 선포”



2016년 3월 29일 일지아트홀(서울 강남구)에서 국제뇌교육학회(International Research Association for Brain Education ; IRABE) ‘학회 창립 선포식 및 뇌교육미래포럼’이 개최되었다. 국제뇌교육학회는 인간의 무궁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뇌활용 원리와 방법을 탐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국제뇌교육학회 초대 학회장에 오른 이승헌 국제뇌교육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둑대결에 쏟아진 세계적인 관심과 이를 둘러싼 논의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만든 것은 결국 인간 뇌의 창조성의 산물이다. ‘지구’와 ‘평화’를 뇌의 중심가치로 삼는 1억 지구시민의 탄생과 연대가 평화기술 뇌교육이 지향하는 미래이다. 국제뇌교육학회는 인류의 의식과 문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으로 이 길을 걸어갈 것이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윤경 한양대 사범대학장은 “지난 2015년 코이카

(KOICA)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뇌교육이 중남미 국가인 엘살바도르에서 놀라운 효과를 거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심신수련체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뇌를 계발하고 활용하는 뇌교육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오늘 국제뇌교육학회 창립 포럼은 그 중요성을 알리는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축하했다.

각 섹션별 발표는 이승헌 학회장의 기초강연을 비롯해 ‘몸과 마음 그리고 뇌파진동(강도형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뇌의 목소리, 뇌파가 들려주는 이야기(최정미 락사 기술연구소장)’, ‘뇌파 조절 기술, 뇌교육(노형철 한국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일본에서의 명상프로그램을 통한 재해 지원(세토 노리코 코난여자대학 간호 리허빌리테이션학부 준교수)’, ‘뇌교육 미국 교육의 질을 높이다(데이브 빌 미국 파워브레인에듀케이션 이사)’ 발표로 이어졌다.

향후 국제뇌교육학회는 연령별, 산업별 국제뇌교육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학술대회, 포럼, 학술지 등에 발표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통한 글로벌 뇌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16년 5월: 아시아 최초 개최 '유엔NGO컨퍼런스' 참가, 세계시민교육 시너지 모색

- 국제뇌교육협회,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제66차 유엔NGO컨퍼런스' 한국개최 기념해 전국 14곳서 '지구시민교육' 세미나 개최
- '세계시민교육' 주제 아시아 최초로 한국 경주서 열린 '유엔NGO컨퍼런스'에 참가



'지구시민교육'은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내면화하고, 지구적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학습하여, 자기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지속가능한 지구촌 미래의 열쇠가 인간의 올바른 뇌활용에 있음을 자각하고, 자기성찰활동과 평화의식 증진에 주안점을 두는 교육이다.

국제뇌교육협,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앞장

미래교육대안으로 주목받는 뇌교육과 글로벌 교육 트렌드 부상한 세계시민교육과의 연결 시너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2015년 상반기 '지구시민교육연구회'를 발족해,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중학교 자유학기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현장 파일럿 적용을 마치고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 보급을 시작했다.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세미나 개최를 비롯해 4차례에 걸쳐 교사 및 강사 대상 400여명 지구시민교육 심화워크숍 진행도 마쳤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령별 지구시민교육을 추가 개발하고 자발적 청소년·청년 실천프로젝트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구시민교육 세미나' 전국 10곳서 개최

국제뇌교육협회는 지구시민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지구시민교육 전국세미나'를 지난 4월 10일부터 한 달간 개최했다. 세미나는 2016년 5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린 '제 66차 유엔NGO콘퍼런스: 세계시민교육'을 기념하여 마련되었으며, 뇌교육 올림피아드 한국대회와 함께 열려 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지구시민교육 세미나 강사진으로 참여한 국제뇌교육협회 김지인 국제협력팀장은 "지구촌이 급변하는 시대에 학부모들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과 지구 생태계 위협 속에서 자녀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바로 알고 지구경영자로서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뇌교육협회, 아시아 최초로 한국 경주서 열린 ‘유엔NGO컨퍼런스’ 참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 경주에서 ‘제66차 유엔NGO컨퍼런스’가 개최되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전 세계 1,500여개 유엔NGO 대표가 참가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그 핵심 주제로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한 개발목표(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SDGs)’로 제시하고 있어 글로벌 교육트렌드로 부상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유엔공보국(UN-DPI) NGO인 (사)국제뇌교육협회는 이번 ‘제66차 유엔NGO컨퍼런스’에 이승헌 협회장을 비롯해 30여명의 관계자들이 개최지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를 찾았다.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은 "세계시민교육은 결국 지구를 얼마나 나의 문제로 가깝게 느끼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손에 잡히고, 쉽게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생명의 느낌, 평화의 체험 모두 가까워야 한다.

그려야 나의 문제가 되고, 내 주변으로 전달이 가능하며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며 배꼽힐링의 가치를 강조했다. 또한 강연장 바깥에 마련된 공간에서도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NGO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국제뇌교육협회는 세계시민교육 선도 교사들, 한국형 세계시민교육의 산실 벤자민인성영재학교 학생, 20대 청년 인생학교 벤자민갭이어,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클럽 멤버들과 함께 한국과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에 있어서는 각 나라마다 경제적, 문화적 장애가 많다. 세계시민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권, 평화, 난민 문제 등 국제문제에 대한 인지적 이해도 필요하지만 먼저 교사, 학생들이 스스로 평화를 체험하고 지구, 전 세계인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공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의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학교현장에 적용하고 교원연수를 하면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2016년 6월 :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워크숍’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거점도시 통영서 개최

‘내 몸의 건강, 내 몸의 평화’ 배꼽힐링 체험, “평화는 이론 아닌 체험”

통영에서 한중일 청년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에 대한 토론과 평화체험을 겸한 국제워크숍이 2016년 6월 24일부터 1박2일간 개최되었다. 30여명의 한중일 청년리더들이 참가한 이번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 워크숍(Global Youth Citizenship Workshop for the Sustainable Earth)'은 '한중일 지구시민청년클럽'이 주최하고, 유엔공보국(UN-DPI) 정식지위NGO 단체인 국제뇌교육협회 '청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된 국제교류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통영은 2005년 유엔대학으로부터 세계 8번째로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올해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에 지정되어 지속가능한 교육문화도시로서 상징적인 곳”이라고 개최배경을 밝혔다.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클럽’은 2016년 2월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열린 ‘한중일 지구경영 워크숍’에 참가한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결성, ‘청년, 뇌, 지구’를 슬로건으로 지구촌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아시아청년네트워크.

워크숍을 기획, 주최한 한중일지구시민청년클럽 측은 "한중일 3개국은 역사, 문화적으로 많은 동질감을 갖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구촌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아시아 3국 청년들의 열린 마인드와 지구시민의식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이 열리는 동안 한중일 청년들은 통영 세자트라숲에서 한중일 문화 속에 담겨진 평화코드에 대한 토론과 아름다운 통영의 자연을 배경으로 한 별빛명상, ‘내 몸의 건강, 내 몸의 평화’ 체험을 위한 배꼽힐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진행되었다.





글로벌 청소년 지구시민운동 시작, 뉴욕서 ‘국제청소년배꼽힐링클럽’ 창설

- 국제뇌교육협회, 미국 ECO(지구시민연합)와 ‘지구시민청소년리더십캠프’ 개최
- 지구시민 한-중-일 청소년 200여 명, ‘국제청소년배꼽힐링클럽’ 창설

한국發 뇌교육 아시아 거쳐 미국으로

“Belly button to the earth! I'm an earth citizen!” (배꼽에서 지구까지! 나는 지구시민입니다!)

지구시민 청소년 리더십 캠프(Earth Citizen Youth Leadership Camp)가 2016년 8월 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아너스헤이븐에서 열렸다. ‘배꼽에서 지구까지(Belly Button to the Earth)’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청소년 200여 명이 모였다. 3국의 청소년들은 캠프에서 “나로부터 시작해 지구를 힐링하자”며 ‘국제청소년배꼽힐링클럽’을 창설했다.

이번 국제캠프는 국제뇌교육협회와 미국 ECO

(Earth Citizen Organization, 지구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뇌교육을 배운 미국 파워브레인에듀케이션(PBE, Power Brain Education)의 트레이너들이 캠프를 진행했다.

지구시민 청소년 리더십 캠프는 ▲1부 미국에 보급된 뇌교육 체험 세션 ▲2부 뉴욕 공립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채택된 지구시민교육 수업 체험 ▲3부 글로벌 지구시민학교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글로벌 세션으로 이뤄졌다.

파워브레인에듀케이션의 데이브 빌(Dave Beal)이라는 미국의 공교육에 뇌교육을 전하고 있는 트레이너들과 함께 1부 세션을 진행했다. 트레이너들은



뇌교육 리더십 코스(Brain Education Leadership course, BEL)를 이수한 이들이다.

2부에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수업하는 '지구시민' 수업 체험이 이뤄졌다. 한중일 청소년들은 '지구시민' 과정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한 뉴욕 고등학교(NYC Lab School for Collaborative Studies)의 교사인 마네 앤더시안(Mane Andreasyan)씨의 지도에 맞춰 지구시민 참여 수업을 체험했다.

3부는 지구시민 롤모델 학교인 벤자민인성영재학교를 주제로 세션이 이뤄졌다. 2014년 개교한 한국 벤자민인성영재학교의 김나옥 교장과 미국에서 올해 10월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데이브 빌 이사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표했다. ECO의 스티브 킴 이사는 벤자민학교 학생들의 지구시민 체험장인 ECO러닝센터(미국 애리조나 주)를 소개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벤자민학교 재학생들도 자신의 지구시민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국제청소년배꼽힐링클럽 창설, 청소년 참여한 지구시민 프로젝트 개시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배꼽에서 지구까지' 슬로건

에 맞춰 청소년들이 자신을 힐링하고 가족과 사회, 나아가 지구를 힐링할 수 있는 배꼽힐링을 주제로 활동하는 글로벌 클럽을 창설하며 마무리되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청소년 200여 명이 주축이 되어 '국제 청소년 배꼽힐링클럽'을 만들었다. 이 클럽을 중심으로 한중일 청소년들은 지구를 바꾸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구시민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국제뇌교육협회 이승헌 회장(글로벌사이버대 총장)은 “‘배꼽’은 생명력의 상징이며 ‘지구’는 지금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가치”라며 “뇌교육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다. 뇌교육이 미래교육의 대안으로 주목 받는 이유”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캠프에 참가 청소년들은 국제뇌교육협회가 선포한 '뉴욕 뇌교육 주간(Brain Education Week in NY)'에도 참가했다. 8월 2일 뇌교육 두뇌올림픽이던 IHSPO(국제브레인HSP올림픽) 11회 국제대회, 3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청소년 정신건강 컨퍼런스(Youth Mental Wellbeing Conference)에도 참가했다.



“개인 정신건강 증진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열쇠”

‘제2의 뇌를 깨워라’, 글로벌 건강관리 트렌드 ‘배꼽힐링’ 효과 주목

인류의 미래는 지속가능한가? 최근 급격한 지구 온난화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그동안은 개인의 영역과는 상관없었던 이 질문이 불현듯 모두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가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를 출간한 이후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2015년 최종적으로 국제사회가 오는 15년간 함께 이루어갈 목표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를 발표했다.

이 중 세 번째 목표로 ‘모든 연령대에서의 건강한 삶과 웰빙 보장’을 내세웠다. 이 중 4번째 세부 목표는 생활습관의 변화와 개인의 참여가 중요시되는 만성질환 감소와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이제 의료기관에 의존하는 신체적 건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심신의 건강을 아우르는 웰빙과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Goal 3.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 Target 3.4. By 2030, reduce by one third premature mortality from non-communicable diseases through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promot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만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은 전 세계 사망원인의 68%, 조기사망원인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는 전 세계 10명 중 1명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특히 청년(15~29세)의 사망원인 2위를 차지했다.(1위는 교통사고이다.) 만성질환과 정신건강이 그만큼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영국 최대 민영방송인 ITV는 2016년 8월 27일 국민들에게 운동할 시간을 주겠다며 오전 9시30부터 1시간 동안 자체 7개 채널의 방송을 모두 중단했다. 영국정부는 국민보건을 위한 '아이 엠 팀 GB(I Am Team GB)'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말동안 스포츠클럽들을 일반에 무료로 개방했다. 2015년 4월부터 선보인 보건복지부 금연 광고 캠페인은 '흡연은 질병입니다'라는 카피와 함께 흡연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폐의 모습을 국립발레단의 무용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여 금연 상담 전화가 3배 가까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미디어와 정부의 이런 파격적인 캠페인들은 국민보건에 있어서 건강을 위한 개인의 의식적인 선택과 실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OECD 국가에서는 지난 몇 십년 사이 국가의 헬스케어 비용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헬스케어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 취업 등에 대한 복지 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지출하는 헬스케어 비용을 줄이고 아동과 청소년 교육과 복지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만 하는데 말이다.

기대수명의 연장, 중산층의 증가,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등으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기업 또한 건강이라는 요소를 새로운 기회 창출의 중요한 미래전략으로 삼고 있다. 매년 저명한 경제학자, 기업인, 애널리스트 등이 함께 모여 세계경제의 흐름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2013년 1월에 <헬스케어산업 2013(Healthcare Industry 2013)>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헬스케어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비전의 하나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업들은 개인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소비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환경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것은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시민의 의무로 규정하는 일종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의 압력을 개인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건강발자국(Health footprint)'라는 지표로서 제안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계약으로 개인과 국가가 계약관계에 있듯이, 건강은 인권의 한 영역이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 비용을 낮추는 건강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기관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던 헬스

케어 시스템에서 개인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발달해가는 의학기술과 넘쳐나는 건강정보와는 반대로 현대인들의 심인성 질환과 면역력 저하는 인류 구성원이 당면한 본질적인 건강의 문제이며, 건강트렌드가 치료에서 예방으로 그리고 관리의 영역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쉽고 빠르게 건강한 상태를 체험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각과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건강관리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건강을 위한 선택과 행동은 긍정적 정서를 통해 강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 장과 뇌의 관계에 기반하여 개발한 ‘배꼽힐링(Belly button healing)’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배꼽을 중심으로 장을 느끼고, 파스하게 하며, 생활 속에서도 손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법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신 과학계에서 ‘제2의 뇌(The Second brain)’으로 주목받는 장을 중심으로 소화계, 순환계, 면역계에 긍정적 변화를 통해 개개인 스스로 신체건강과 정서조절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함으로써, 언제부터인가 건강이란 것을 마치 낯선 타인처럼 대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만 하는 습관이 생긴 현대인들에게 훌륭한 건강관리법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 · 김지인 국제뇌교육협회(IBREA) 국제협력팀장
jkim618@gmail.com

참고자료

- *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 United Nations
- * Sustainable Health Systems: Vision, Strategies, Critical Uncertainties and Scenarios, 2013, World Economic Forum
- * World Health Statistics 2016: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2016, World Health Organization

후원하기

Brain Education As a Tool of Peace Education



- 국제뇌교육협회는 21세기 인류 미래의 키워드인 '뇌'의 무한한 자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국제단체입니다.

오늘날 인류문명을 만든 것이 인간 뇌의 창조성에서 비롯되었듯, 당면한 물질문명의 위기를 해결할 열쇠도 바로 인간의 뇌 속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먼브레인(Human Brain)'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뇌교육 컨설팅을 통해 인류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 후원금은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뇌교육 관련 출판물 발행 및 보급, 뇌교육 관련 컨설팅, 해외 교육원조, 뇌교육 컨퍼런스 개최, 프로그램 연구개발, 사무국 운영 등에 지출됩니다.

월 5천원 이상 정기후원이 되시면, 격월간 뇌교육매거진 <브레인>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뇌교육 정보를 뉴스레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 후원방법

국제뇌교육협회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배너클릭 후 신청